

# 동서양의 손꼽히는 군사고전

## 손자병법에서 전쟁술까지

이내주 · 육군사관학교 역사학과 교수

‘지피지기 백전불패’라는 문구로 잘 알려진 《손자병법》은 약 2500년 전 춘추시대 오나라의 군사(軍師)였던 손무에 의해 씌어졌다. 동양 최고의 군사고전으로 꼽히는 《손자병법》은 일찍이 군사이론가들의 전쟁수행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쳤다. 특히 동양문화권은 물론 18세기 중엽 유럽에 소개돼 나폴레옹조차 항상 지니고 다닐 정도였다. 이 책은 후대에 저술된 《손빈병법》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지만, 1972년 중국 산둥성의 한 분묘에서 두 책의 죽간본(竹刊本)이 동시에 출토됨으로써 논쟁은 일단락됐다.

### 동양 최고의 군사고전은 《손자병법》

현재까지 《손자병법》은 13편이 전해지고 있다. 각 편 제목을 살펴보면, 1편 계, 2편 작전, 3편 모공, 4편 형, 5편 세, 6편 허실, 7편 군생, 8편 구변, 9편 행군, 10편 지형, 11편 구지, 12편 화공, 13편 용간이다. 책의 원문은 대체로 문장이 간결하지만 많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간혹 생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의해 읽어야 한다. 더구나 시공을 초월해 적용할 수 있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어 정확한 어의(語義)를 파악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손자병법》에 대한 무수한 주석들이 존재하고 있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는 《손자병법》에 필적하는 서양의 군사고전으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꼽는다. 이 책은 흔히 “전쟁은 다른 수단들에 의한 정치의 연속”이라는 명제로 알려져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좀더 심오하고 폭넓은 사상을 내포하고 있다. 프로이센 장교의 아들로 태어나 12세부터 군인의 삶을 살았던 그가 39년간의 군 생활과 무수한 실전을 경험한 뒤 무려 12년간에 걸쳐 집필한 이 책은 서양 군사이론의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전체적으로 3부 8편 125장으로 구성됐다. ‘전쟁의 본질’로 시

작해 그의 주장의 실험적 적용사례에 해당하는 ‘전쟁기획’까지 전쟁에 대한 기승전결을 파노라마처럼 정리했다. 이 책은 ‘전쟁의 본성과 개념’, ‘전쟁과 정치의 관계’ 등의 개념이 의미하듯 사변적인 경험을 내포하고 있으나, 동시에 ‘전략과 전술의 근본문제’, ‘방어와 공격의 상호관계’ 등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주제도 다루고 있다. 이처럼 이론과 실재를 수준 높게 결합하고 있는 점이 이 책을 최고의 군사고전이 되게 한 비결이다.

출간 이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된 《전쟁론》은 전쟁에 대한 이해와 각국의 전략사상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책의 진가는 19세기 말 이후 일련의 전쟁을 겪으면서 더욱 빛을 발한다. 특히 전쟁을 국가정책과 관련해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클라우제비츠의 접근 방식은 시공간적 차이라는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점차 복잡해지는 현대전쟁을 수행하고 대비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원칙 지닌 거대한 체스게임으로 파악

유럽을 뒤흔든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 일어난 일련의 전쟁은 조미니의 《전쟁술》이 등장하는 토양이 됐다. 이 책은 1779년 스위스에서 태어나 이후 네이장군의 참모로서, 그리고 1813년 이후에는 러시아 알렉산더 1세의 군사보좌관으로 일생을 보낸 조미니가 자신의 전투경험과 군사사상을 집대성한 것이다. 약 30년에 걸친 저술활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 책 한편으로도 조미니는 손자나 클라우제비츠에 상응하는 군사사상으로 자리매김되기에 충분하다.

조미니는 프레드리히제와 나폴레옹간의 전쟁을 면밀히 분석해 전쟁수행에서 불변의

고대 그리스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쟁의 원인, 전개양상, 그리고 결과에 대한 연구는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물론 20세기에 접어들어 사회경제분야가 주목받으며 상대적으로 위축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이하 소개하는 책은 동서고금을 통해 전쟁의 본질 및 수행방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군사고전이다.

원리를 발견하고자 했다. 특히 전쟁의 원리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 그는 전쟁시 실천적으로 취하게 되는 조치를 전략·대전술·병참·공병·소전술 등 5개 항목으로 나눴다.

이 중에서 돋보이는 분야는 전략이다. 전략이라는 제하로 그는 전쟁의 모든 작전을 규제하는 하나의 위대한 원리—‘결정적 지점에 대한 병력의 집중’—가 있음을 반복적으로 강조했다.

오늘날 《전쟁론》은 잘 알려져 있지만, 조미니와 그의 저자인 《전쟁술》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일정한 원칙을 갖는

거대한 체스게임으로 전쟁을 파악한 그에게 근대 군사전략의 수립자라는 타이틀을 붙여도 손색이 없다. 그의 군사사상은 21세기를 목전에 둔 오늘에도 유효하며, 무엇보다 군사사상의 발전에서 나폴레옹이 미친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관찰하고 분석한 연구자로서 그를 필적한 만한 인물은 거의 없다.

### 해양력의 중요성도 강조

19세기 말부터 서구 열강은 앞다퉈 제국주의 진출로 나섰다. 해외시장 개척과 확보, 나아가 해양의 지배가 국부의 관건이 됐다. 따라서 국가의 산업·해외무역·식민지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해군이 절실히 필요하게 됐다. 이런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 등장한 저술이 바로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이다. 이 책은 다양한 일선 근무를 경험한 마한이 1885~1886년 해군

## “전쟁론은 토털학문이다” 《밀리터리 클래식》 시리즈 펴내는 책세상

그동안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배경과 거듭된 군사정권의 등장으로 전쟁과 관련된 서적의 출간이 부진했다. 그러나 전략사상가의 저술은 국가간 전략과 상관관계가 깊다. 우리와 같은 국가는 전쟁론을 철저히 연구해 국가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더욱이 세계화의 거센 조류에 따라 국가간 경계가 없어지는 지금 국가간 전략을 담은 전쟁 관련 서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문예물과 인문서를 주로 내오던 책세상(대표 김지승)이 군사학 시리즈인 《밀리터리 클래식》을 선보이고 있다. 김광식 편집장은 “개인적인 관심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책세상은 지금까지 중국 최고의 병서인 《손자병법》(김광수 해설), 전쟁영웅 나폴레옹이 지은 《나폴레옹의 전쟁 금언》(원태재 옮김), 19세



기 대표적인 군사사상이 카를 폰 클라우제비츠와 앙투안 앙리 조미니의 《전쟁론》(류제승 옮김)과 《전쟁술》(이내주 옮김), 알프레드 마한의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1·2)》(김주식 옮김), 그리고 존 프레더릭 찰스 폴리의 《기계화전》(최원규 옮김) 등을 펴냈다. 올해 안으로 줄리오 두에의 《제공권》(이명

# 『리더스 라이프』는 기독교출판시장을 겨냥한 광고 매체로 적합합니다

아름다운 삶,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리더스 라이프』가 첫 인사 드립니다.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는 기독교 평신도를 위한 잡지 『리더스 라이프』를 창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진솔하게 그려가는 이 잡지는 미국 『Christian Reader』의 기사를 제공받고, 별도로 한국관련 기사들을 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잡지의 발행은 LA에 있는 선교단체인 ACTS29와 협력하여 한국과 미국의 교회와 평신도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마케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독교출판 시장에서는 대개의 잡지들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더스 라이프』는 20대 이상의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하여, 그들에게 부담없이 접근할 수 있는 매체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출판물들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매체가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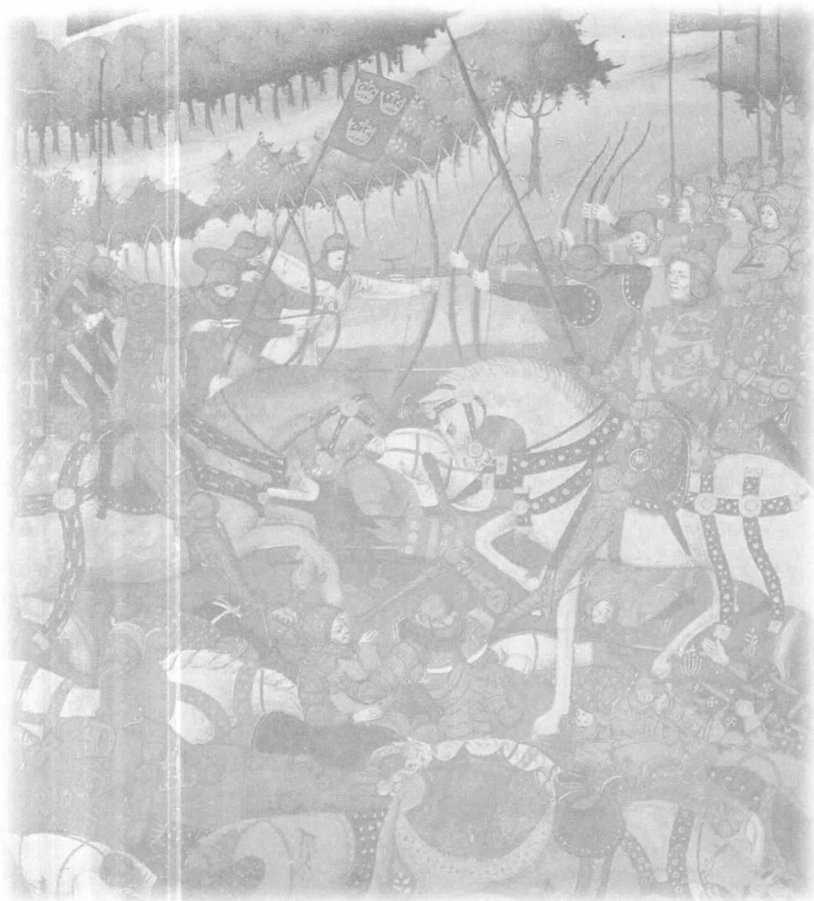
## 리더스 라이프에 적절한 광고

- 성경 · 찬송 · 주석성경류
- 평신도를 위한 단행본
- 찬양음반 · 비디오
- 크리스천 팬시 상품류
- 신학대학 입학 안내
- 대기업 공익광고



- ▶ 광고를 연간으로 계약하시면 20%를 할인해 드립니다.
- ▶ 광고문의 : T.2264-7211~3 SP 사업부 홍보담당 심동교

**예영커뮤니케이션 · CUP**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93 장충빌딩 B동 3층  
출판부 T.2264-7211~3 출판유통사업부 T.830-8566 F.830-8567 도모사업부 T.851-2248  
CUP는 예영커뮤니케이션에서 위탁 경영하는 출판사입니다



중세전쟁. 15세기 프랑스 필사본의 세밀화(부분). 《전쟁의 역사》(책세상) 중에서.

대학에서 강의한 해전사 내용을 정리해 출판한 것이다.

이 책은 500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서론을 포함해 총 15장으로 구성됐다. 각 장에 1660년부터 1783년까지 주로 영국·

환 율김), 바실 리텔 하트의 《전략론》(주은식 율김), 세르게이 고르시코프의 《국가의 해양력》(임인수 율김), 리처드 삼킨의 《기동전》(연제욱 율김) 등을 펴내 1차 시리즈를 완간할 계획이다.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전쟁 관련 도서로 꼽히는 이들 책은 모두 현역 군인이 번역한다.

전쟁론을 담은 거의 모든 책은 철학·역사·사회·국제정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군사전략을 기본 지식으로 삼을 한 전쟁론은 토탈학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략을 얻을 수 있다.

김광식 편집장은 “사회생활을 하는 누구나라도 지략을 발휘하며 살고 있을 것이다. 전쟁 관련 서적은 지략의 폭을 넓혀 준다. 최근 전쟁론을 다룬 책을 통해 전략과 지략을 배우려는 화이트칼라층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진정한 전략가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수단, 즉 힘을 키우기 위해 전략을 세운다.” 책세상은 바로 그런 전략가를 중심으로 하는 관련 서적을 연이어 펴낼 계획이다. <오완진>

네덜란드·프랑스·스페인 등 유럽의 강대국 및 독립전쟁기의 미국이 세계 각지에서 벌인 7차례의 전쟁과 약 30회에 달하는 해전을 분석하고 있다.

그는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쟁의 원칙을 도출하고 한 국가가 해양력을 장악할 수 있었던 조건을 검토하고 있다. 무엇보다 마한은 이 책을 통해 대영제국 번영의 핵심이 해양의 장악에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해양력의 중요성에 대한 미국인들의 의식을 일깨우고자 했다. 마한의 책은 독일·프랑스·일본어 등으로 번역돼 오늘날까지 해군사 및 해양전략 분야의 고전으로 회자하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전쟁 및 전략에 대한 논의에서 자주 인용되는 군사고전을 제한적으로 소개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군사고전에 대한 관심은 일부 독자로 국한돼 왔으나, 최근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다소 고조되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중요한 군사고전이 번역·소개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특히 최근 ‘책세상’에서 《밀리터리 클래식》이라는 제하의 10권짜리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다. 이는 군 관련자 이외에는 군사분야에 대한 관심이 척박한 우리나라에서 선구적인 일이다. 그 의미는 사뭇 크며, 고무적임에 틀림없다. ❖